

광주·전남·전북 호남권 메가시티 광역 철도망 구축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광주 신산업선' '광주~전주선' 반영 요청
국가산단 철도망으로 연결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조성

광주, 전남·북을 아우르는 호남권 메가시티(Mega City)조성을 위한 광역 철도망 구축사업이 본격화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호남권 메가시티는 광주·전남·북 광역 지자체를 경제 협력 도시로 묶어 경제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모델로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철도망은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혈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광주 신산업선'과 '광주~전주선' 2개 노선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국토부)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 전남·북 국가산단을 철도망으로 연결하고 광주와 전주를 오가는 철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철도망이 구축되면 광주와 전·북 경제권의 발전을 이끌 핵심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신산업선(44.7km)은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영광까지 잇는 일반철도로 1조 9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주선(27.8km)은 광주송정역과 전주를 연결하는 일반철도로 1조 2433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부가 각 광역 자치단체별로 철도 신규 사업 건의서를 접수한 뒤 지자체 설명회 등을 거쳐 국가철도망을 확정하는 계획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철도 장기 비전·전략과 철도 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제5차 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4차 계획에 비해 1년 이상 앞당겼다.

전국 광역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업 규모만 360조원에 달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각 지자체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타 지역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예타 면제 등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특별법안 등을 발의하고 힘을 쓰고 있지만, 광주지역 의원들의 지원은 미약한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철도망 구축사업은 호남권의 발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니만큼 국가철도계획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쏟겠다"며 "지역정치권과 시민들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1일 열리는 제 5차 대도시 광역교통 시행 계획 간담회(광주·전남권)에서도 광역교통 확충과 개선을 위한 신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첨단 3지구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사업비 582억원)에 대한 계획을 건의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광주·화순 광역철도(국비 5094억원, 지방비 2183억원)를 비롯해 3개 광역도로 확장·신설을 반영해 줄 것으로 요청한다. 3개의 광역도로는 장성·함평·광주임곡간 지방도 개선사업(358억원, 358억원), 광주 삼도·함평 나산 확포장공사(283억5000만원, 283억5000만원), 광주 망월·담양 급원간 도로개설(175억원, 175억원) 등이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사업별 경제성 분석(B/C), 자체 신규 사업 발굴, 지자체 협의,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에 최종 고시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상호 관세 25% 발효...대미 수출 '비상'

환율 1484.1원까지 치솟아

우려했던 미국 상호 관세정책이 9일 발효되면서 우리나라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전남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기사 10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부과하기로 한 상호 관세가 9일(현지시간·한국 시간 9일 오후 1시 1분)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을

받게 됐으며,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 25%의 관세가 붙었다.

'관세 전쟁'으로 이날 원/달러 환율도 치솟았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10.9원 오른 1484.1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16년여 만에 최고치다.

코스피 지수도 1년여 만에 2300선을 밀돌았다. 이날 코스피 증가는 전 거래일 대비 40.53포인트(1.74%) 내린 2293.70으로 집계됐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대통령선거 D-55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지정된 가운데 9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로비에 선거일이 55일이 남았다는 내용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후보 선출 일정·경선룰 조정 본격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되면서 각 정당이 대선 후보 선출 일정과 '경선 룰'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조기대선 준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관리를 맡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4선의 박병계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3선의 김정호 의원과 재선의 임오경 의원이 맡았다.

선관위는 10일 1차 회의를 여는 데 이어, 조만간 각 후보 캠프 관계자들과 경선 '룰미팅' 등을 하고 경선 일정과 규칙 등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선(6월 3일) 한 달 전인 5월 초 후보를 확정 짓기로 하고 구체적인 경선 일정표를 짜고 있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14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19일부터 2주일 간 총청을 시작으로 4개 권역에서 순회 경선을 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5월 3~4일께 후보를 확정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후보 선출일은 하루 이틀 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순회 경선 순서는 중원인 충청에서부터 시작해 영남권과 호남권을 거쳐 수도권·강원·제주권에서 마무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선 룰'은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대 대선 때 특별당규로 정한 예비경선 규칙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 반영' 방식이지만, 비명계는 이 전 대표가 당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만큼 당원과 일

반 국민 구분 없이 '100% 국민 투표'로 후보를 뽑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두 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대선 경선 후보자를 각각 4명, 2명 순으로 압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1차 컷오프의 경우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 2차 컷오프는 '당원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이 무게가 실렸다.

다만 1차 컷오프를 통해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4강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초반부터 경선의 분위기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1차 컷오프가 '국민 여론조사 100%'로 이뤄질 경우, 여론조사 참여 대상을 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제한하는 역선택 조항의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전남 보건지소 절반 이상 공보의가 없다 ▶6면

KIA 운영철 15일 만에 등판 약일까 독일까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강원도 강릉 '경포호' ▶22면

신문의 날 대체 휴무...11일 신문 쉽니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OK!Now
Jeonnam

전남愛 착착착 프로젝트

1단계

전남 애착

도시민 대상 오감만족
현장 체험(2박 3일)

전남 맛보기

2단계

살아보며 안착

농어촌 맞춤형
지역살이(2 ~ 3개월)

전남에서 살아가기

3단계

도민으로 정착

빈집 리모델링
월 1만 원(최대 2년) 임대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전라남도 귀농산어촌종합지원센터
| 문의 : 1577-1425

누리집

카카오톡
상담

귀농TIME
유튜브